

문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 아닐까?
- ① ㉠, ㉡ ② ㉡, ㉢
- ③ ㉢, ㉣ ④ ㉣, ㉤

정답: ②

출제유형: 문법 지식 - 품사 구별 《중》

해설: ㉠과 ㉢은 동사, ㉡과 ㉣은 형용사, ㉤은 관형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다/는/다 관형법’을 활용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다른’은 관형사이거나 형용사이다. 서술성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 ‘성격이 다르다’의 구성으로 서술성을 지니므로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 ‘크지’는 ‘크다’의 어간에 어미 ‘-지’가 결합된 용언이다. ‘크다’는 상태의 형용사로 주로 쓰이지만 ‘자라다(성장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동사이다. ‘나무가 잘 크다’가 가능하므로 동사로 파악하면 된다.

㉢: ‘나서’는 용언 ‘나다’의 어간에 어미 ‘-아서’가 결합된 형태로 ‘홍수가 난다’가 가능하므로 동사로 보면 된다.

㉣: ‘허튼’은 ‘허트다’나 ‘허들다’ 따위의 기본형이 없으므로 동사나 형용사가 아닌 관형사이다.

㉤: ‘아닐까?’는 형용사 ‘아니다’에 의문형 종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이다. ‘아니다’는 항상 형용사이다. ‘아니다’가 안 되기 때문에 동사로 파악해도 된다.

문 2. 다음의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 ② 정보통신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
-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정답: ①

출제유형: 작문과 화법 - 조건에 맞는 논제 파악 《저》

해설: ①은 ‘-어야 한다’의 구성이므로 긍정 평서문, 찬반 양론이 가능한 하나의 논제에 정서적 표현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

[오답피하기]

②는 긍정 평서문이 아니고, ③은 ‘야만적인’이라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하여 긍정성에 위배되며, ④는 두 개의 쟁점이 반영되어 정답이 될 수 없다.

문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 이강백, 「파수꾼」에서 —

- ①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 ②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 ③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 ④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정답: ③

출제유형: 현대 회곡 - 서술 내용 파악과 추리 《저》

해설: 해설자는 무대 배경과 인물 파수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아버지가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지 아버지를 소개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대 위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작품에 관한 사전 지식은 전혀 필요없고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매우 저난도 문제이다.

장/문/단/문

이강백, 「파수꾼」

[해제]

이승 우화 <양치기 소년과 이리>를 모티브로 삼아 권위주의에 의해 통치되던 1970년대의 정치 상황, 곧 체제 유지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던 당시의 안보 정책과 지배 권력을 풍자한, 현실 비판적이고 우의적 성격을 지닌 단막극이다.

[인물]

- 촌장: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진실까지 왜곡하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권력자를 상징하는 인물.
- 파수꾼 ‘가’ ‘나’: 독재 권력의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권력의 나팔수를 상징함.
- 파수꾼 ‘다’(소년): 처음에는 독재 권력에 저항하여 진실을 추구하지만, 결국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는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하는 인물
- 마을 사람들: 독재 권력에 기만당하며 살아가는 우매한 민중을 상징함.

[주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과 진실에 대한 열망

[줄거리]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에서 파수꾼은 끊임없이 이리 떼의 내습을 감시한다. 파수꾼이 양철북을 두드리면 즉시 대피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나날의 연속이다. 파수꾼 ‘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는 외침과 양철북 소리에 항상 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다’는 이리 떼를 본 적은 없다. 그 역시도 신호밖에 듣지 못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는 등 어찌할 바를 몰라한다. 어느날 저녁, ‘다’는 파수꾼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두려움을 안고 망루에 올라가 파수꾼 ‘가’가 이리 떼라고 외치는 것의 정체를 본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촌장에게 알린다. 촌장은 ‘다’를 찾아와 이리 떼가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촌장은 이리 떼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사람들의 긴장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단결된 역량을 모아 나름대로의 번영을 지속시켰다는 말로 ‘다’를 설득한다. 촌장의 설득에 ‘다’는 망루에 올라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상의 업무로 돌아왔을 때 멀리 파수꾼 ‘다’의 외침이 들린다.

문 4.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 ①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③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정답: ④

출제유형: 화법 - 공감적 듣기의 실제 《저》

해설: ④는 공감적 화법 중에서 일종의 '반응하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빈의 발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만일 "나도 처음 ~할 때 너무 긴장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라는 말이 들어 있다면 맞는 선지에 해당한다. 참고로 공감적 듣기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요약하기, 반응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요약하기'는 들은 내용을 재진술하여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응하기'는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줌으로써 공감을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피하기]

①은 '정말?' '했구나'에, ②는 '자세히 말해 봐'에, 그리고 ④는 '처음 하는' 그래서 '~했나 보다'에 그러한 공감적 듣기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문 5.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역 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변동 전	변동 후
㉠ XaY → XbY(교체)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 XaY → XY(탈락)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①

출제유형: 문법 - 음운의 변동과 유형 《중》

해설: '부역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첨가(첨가)가 반영되어 [부역닐]이 된 뒤, 비음화(교체)가 일어나면서 [부영닐]로 변동된다. 따라서 '부역일'은 ㉠ '교체'와 ㉡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문 6.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자: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반대 측: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 반론해 주시죠.

반대 측: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채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 ① 찬성 측은 진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④

출제유형: 화법 - 토론자의 발화 방식 이해 《저》

해설: 반대 측의 반론 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방관자 규정의 모호성'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맞는 서술이다.

[오답피하기]

①, ② 찬성 측은 진숙한 상황을 빗대어 유추적으로 활용하거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나와 있지 않다. "∼ 많다고 합니다."와 같이 들은 얘기를 제시하여 논증을 보충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하였다. 윤리적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 7.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을(를) 통해 드러난다. (㉡)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 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이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이다.

- ㉠ ㉡ ㉢
 ① 골계(滑稽) 해학(諧謔) 풍자(諷刺)
 ② 해학(諧謔) 풍자(諷刺) 골계(滑稽)
 ③ 풍자(諷刺) 해학(諧謔) 골계(滑稽)
 ④ 골계(滑稽) 풍자(諷刺) 해학(諧謔)

정답: ④

출제유형: 문학 이론 - 국문학의 미적 범주와 용어의 개념 《고》

해설: 문맥상 '풍자'와 '해학'을 아우를 수 있는 어휘가 ㉠에 들어가야 한다. 선지의 특성상 일단 '골계'가 들어감을 짐작할 수 있다. 본래 '골계(滑稽)'에는 '익살과 교훈'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다음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풍자'이므로 ㉡에 어울리고, 익살스러운 언행이 '해학'이므로 ㉣에 어울린다.

[오답피하기]

② ③ "을 통해 풍자와 해학이 드러난다고 하였으므로 ㉠에 '풍자'나 '해학'이 들어갈 수는 없다.

문 8.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 <보 기 1> —————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시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 ①

출제유형 : 비문학 독해 - 보기 문장의 문맥적 위치 《중》

해설: <보기>는 ‘아침과 저녁의 시간 개념과 결부하여 기도가 뉴스로 대체된 상황’을 말하였다. 따라서 ㉠의 앞에서 ‘뉴스와 교회의 시간’을 언급했기 때문에 ㉠ 부분에는 그 상술의 성격을 띤 <보기> 내용이 와야 한다.

문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헌 먼덕¹⁾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 개 짖을 뿐이로다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北窓)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 대승(戴勝)²⁾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
 종조(終朝) 추창(惆悵)³⁾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나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에서

- ※ 1) 먼덕: 짚으로 만든 모자 2) 대승(戴勝): 오디새
3) 추창(惆悵): 슬퍼하는 모습

- ① ㉠은 실재하는 존재물이고, ㉡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 ② ㉠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고, ㉡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
- ③ ㉠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한다.
- ④ ㉠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정답: ④

출제유형 : 고전 운문 - 인물의 태도와 감상의 적절성 《저》

해설: 문맥상 보아도 ㉠과 ㉡은 모두 화자의 힘겨운 처지와 서글픈 심정을 느끼게 해 주는 객관적 상황물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누항사(陋巷詞)》는 임진왜란 직후 몹시 형편이 어려워진 사대부의 고달픈 현실을 그린 가사 작품이다. 제시문은 발갈이를 위해 이웃에 소를 빌려 갔더니 소 주인은 전날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소를 빌려 주게 되고, 이에 상심한 화자가 좁고 누추한 집으로 돌아온 뒤 침울한 심정으로 한숨을 이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피하기]

- ①, ③ ㉓, ㉔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로, 화자의 서글픈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
- ② 소를 빌리지 못하고 터덜터덜 돌아올 때 ‘쫄쫄 작은 모습’을 보던 짓는 ㉓의 ‘개’는 가난하고 초라한 화자의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존재이므로 절망감과 관련되지만, ㉔에서 ‘오디새’가 한을 뽐낸다고 하였으므로 은 화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문 10.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겹발을 비스듬히 걸으니 비취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 재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풀섶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뉘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에서 —

- ① 琴瑟之樂 ② 輾轉不寐
③ 錦衣夜行 ④ 麥秀之嘆

정답 : ②

출제유형 : 한자 어휘 - 고전문과 한자 성어 적용 《중》

해설: 시 속의 주인공은 봄밤에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비되는 사물들을 제시하여 쓸쓸한 심정을 부각하였고, 마지막에 가서는 새벽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② 전지불매(轉側不寐)가 가장 잘 어울린다.

허난설현의 한시 <사시사(四時詞)>는 사시(四時), 즉 사계절의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다룬 한시 작품으로, 춘사(春詞), 하사(夏詞), 추사(秋詞), 동사(冬詞)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은 춘사(春詞)의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금슬지락(琴瑟之樂): ‘금슬지락’의 원말로, 부부 사이의 두터운 사랑을 뜻하는 말.
 ② 금의야행(錦衣夜行): 비단옷을 입고 발길을 다닌다는 것으로, 자랑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또는 아무런 보람도 없는 일을 함.
 ③ 백수지탄(黍黍之嘆):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 나라를 잃은 슬픔.

문11.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 ③

출제유형 : 문법과 규범 - 높임 표현의 유형과 적용 《중》

해설: 주체 높임은 선어말어미(시)나 높임말을 사용하여 주어 사람을 높이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높임말(뵈다/봔다, 모시다, 드시다, 여쭙다/여쭙다)을 활용한다.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청자를 높인다.

③의 경우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어미 ‘시’와 부수적으로 높임 조사 ‘께서’를 사용하였고, 객체인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드리다’를 썼다. 그리고 청자를 높이기 위해 종결어미 ‘-습니다’를 사용함으로써 세 유형의 높임 표현이 모두 실현되었다.

[오답피하기]

- 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모시다’)은 실현되었지만, 상대 높임이 반영되지 않았다.
- ② 객체 높임(‘드리다’)과 상대 높임(‘해오케’)이 실현되었다. 주체 높임이 없다.
- ④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하심소오케’)이 반영되었다. 객체 높임이 없다.

문 12.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탐이며 어용학(御用學)의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釀造)한다.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놓라.

—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

- ① 직설적인 어조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정답 : ②

출제유형 : 현대 문학 - 시 작품의 분석적 이해 《중》

해설: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고 했고,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죽 가래로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고 했으므로 고전적인 질서를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을 따르는 것을 '고전적(古典的)'이라고 한다. 3연 이후를 보면 '큰 집단과 체계', '형식과 조직', '위압적인 전통', '조작된 권위', '인위적인 국경' 등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전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②의 진술은 잘못되었다.

이 시는 1959년 《조선일보》에 수록된 연작시 중 제5화이다. 폭력적인 역사와 문명을 갈아엎고, 천지인이 융합된 대지 위에 새로운 역사·문명이 도래하기를 기원한 작품이다.

[오답피하기]

- ① “하라”의 직설적이고 명령적인 어조로 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큰 집단과 체계와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 탑, 어용학’ 등은 인위적인 것들이요, ‘하늘의 날새, 바람과 햇빛’ 등은 자연적인 것들이다.
⑤ 흠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인 ‘가래로’ 밀어 바다로 밀어 넣으라고 하여 부정한 제제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원하고 있다.

문 13. ㉠ ~ ㉤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때 춘향이든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우는데, ㉠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한때나마 빈방살이 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 것인가. 임 그리워 서러운 마음 밥 맛없어 밥 못 먹고 불안한 잠자리에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으로 상처가 쌓여 피골이 상절하고 양기가 쇠직하여 지났조 율음

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 갈까 보다. 천 리라도 갈까 보다. 만 리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쉬어 넘고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 동선령 고개라도 임이 와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아니 쉬고 달려가리. ㉠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잊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임을 사랑하는가? ㉡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봄눈 녹듯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 작자 미상, 「춘향전」에서 —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 ③

출제유형 : 고전 산문 - 고소설의 서술 방식 이해 《중》

해설: 제시문은 사령(군노)가 변 사또의 명으로 춘향을 데리러 춘향의 집에 당도했을 때 바라본 춘향의 모습 장면이다.

㉔은 훈향이 도넛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의 일부 내용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지 않고 훈향 자신을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㉕, ㉖, ㉗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전지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적 서술은 고소설의 주된 서술적 특징에 해당된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뭉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홀려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뱀 것을 차마?

이때에 누구의 입에선가, 때레라! 하는 고향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옥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간난이 할아버지 턱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즈바이웨다레”

하는 것은 동장네 절가였다.

- 황순원, 「목념이 마을의 개」에서 -

- ① 토속적이면서도 역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 ② 신동이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
- ③ 간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다.
- ④ 동장네 절가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정답 : ④

출제유형 : 현대 소설 - 서사 내용과 인물의 태도 《저》
 해설 : 끝부분을 보면 '동장네 절가'가 간난이 할아버지를 지목하면서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신동이를 달아나게 도와 준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④의 서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평안도 사투리 사용에, 방앗간 주변에서 산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으려는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한 걸음 더 죄어들'자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확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를 보면 임신한 신동이의 생명의 욕구를 엿볼 수 있다.
 ③ '외경(畏敬)'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뜻한다. '짐승이라도 새끼 뺨 것을 차마?'라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엿볼 수 있다.

작/품/이/해
 황순원, 「목념이 마을의 개」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 소설/설화체 소설
 · 배경 : 일제 강점기/평안도
 · 표현 : 묘사와 대화의 절제, 사실의 전달에 충실함. 설화체 문장으로 대화와 묘사가 모두 서술의 형식 속에 녹아든 것이 특징임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액자 소설이므로 외화는 1인칭 시점
 · 주제 : 생명의 강인함과 외경심/한민족의 고난과 그를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
 · 등장인물
 ① 간난이 할아버지 : 신동이를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 사건의 전달자이기도 함.
 ② 큰 동장, 작은 동장 : 신동이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인물. 민족에게 고난을 주는 요인
 ③ 신동이 개 : 주인을 잃고 마을에 홀려 들어와 모진 박해를 받음.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암시함.

· 출전 : <개벽> (1948)

[줄거리]
 어느 곳으로 가려 해도 지나쳐야 하는 목념이 마을에는 서북간도로 유랑가는 이사꾼들이 들러 물을 마시고 발을 씻고 가곤 한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황토에 물들어 누렇게 되다시피 한 '신동이(원동이)' 한 마리가 홀려 들어온다. 몸이 지쳐분하고 다리까지 저는 이 개는 유랑민이 끌고 가다가 버린 개로 보인다. 이 개는 마을 방앗간과 동장네 집을 돌아다니며 주인집 개가 먹다 남긴 밥으로 힘을 추스린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개라고 잡으려 하지만 '신동이'는 도망친다. 그러나 간난이 할아버지만은 '신동이'가 굶주리긴 했으나 미친개는 아니라고 믿는다. 동네 개들이 '신동이'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동장 형제들은 개들을 잡아먹어 버린다. 다시 '신동이'가 마을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신동이'를 잡으려 한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신동이'가 새끼를 뺨 것을 알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리 사이로 빠져 나가게 하여 살려 준다. 얼마 후, 간난이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신동이'의 새끼들을 발견한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커지자 동네 사람들 모르게 데려와 다른 동네에서 얻어 온 것이라고 속여 동네 사람들과 옆 마을에도 나누어 준다. 그래서 인근 마을의 개들도 '신동이'의 피를 이어받게 된다.
 이것은 '내'가 중학 시절 외가가 있는 목념이 마을에 가서 그 간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문 15.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가)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 부운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하고 꾸짖었다.
 (나) 전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과 같은 전기소설이었다. …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가장 재미있고 긴요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요전법(돈을 요구하는 법)’이라 한다.

- ①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 ②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
- ③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 ④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

정답 : ③
 출제유형 : 비문학 독해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저》
 해설 : (가)에 보면 평민들이 언문 소설을 읽거나 즐겼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소설을 창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나)에서 말한 ‘전기수’도 신분은 하층민이었겠지만 소설을 읽어 주는 사람이자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③의 서술은 바르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② (가)에 보면 상중에 상중의 부인이 혼자 언문 소설을 소리내어 읽자 핀잔하는 내용이 나온다.

문 16.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전과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과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고전과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 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흐림 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름으로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하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과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과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과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과 음악의 성격과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고전과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
- ② 고전과 음악의 음악가들 예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③ 고전과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 ④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정답 : ③
 출제유형 : 비문학 독해 - 화제와 개괄적 정보 확인 《중》
 해설 : 첫 번째 단락의 뒷부분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고전과는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의 진술은 바르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첫 문단에서 ‘고전과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부분에서, 그리고 끝 문단에서도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과 음악은’ 부분에서 의의를 밝히고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을 예로 들어 서술하였다.
 ④ 첫 문단에서 의문문으로 화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문 17.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나)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 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 ②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 ③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정답: ①
 출제유형: 비문학 독해 - 제시문에 의거한 추론적 이해 《고》
 해설: (나) 끝을 줄여 보면, '실용적 기술 개발과 달리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것을 재진술하면, '실용적 기술 개발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 된다. ①의 진술은 적절한 추론이다.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자의 생각이 아니다.
 ③ (나) 끝을,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오히려 합리론에 더 토대를 둔다고 추리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필자는 감각 경험에 대한 신뢰가 과학 연구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기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남자들이 군에 가 훈련을 받을 때 비라도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문히는 장면은 정겨울 수밖에 없다. 프로 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는 탓도 있었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짜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 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 ②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 ③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 ④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정답: ④
 출제유형: 비문학 독해 - 정보의 확인과 추리 《지》
 해설: 제시문 끝에 보면,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의 진술은 적절치 않다.

[오답피하기]
 ①은 첫 번째 문단에서, ②는 셋째 문단 첫 문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③은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19.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 ①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 ②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정답: ②
 출제유형: 문법과 규범 - 의미 변화의 유형 《고》
 해설: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배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어휘이다. 한자어 '휴가(休暇)'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유의어로서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는 어휘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치 못하다.

[오답피하기]
 ① 순우리말 '가을걷이'와 한자어 '추수(秋收)'는 동의어로서 여전히 공존하는 어휘이다.
 ③, ④의 의미 축소와 확대의 예시는 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디디티(DDT)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나) 그렇지만 이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

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디티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게다가 디디티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 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깃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 버려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다) 디디티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디디티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디디티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디디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디디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라) 이와 같이 디디티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 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①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디디티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 ④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출제유형: 비문학 독해 - 단락의 전개방식 이해 《고》
 해설: (다)에서는 디디티의 위험성과 확산된 사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하여 사용이 금지된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디디티의 사용의 금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③의 진술을 적절치 않다.

[오답피하기]
 ① 지속적 농약의 ‘악영향’과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디디티’에 대해 소개하였다.
 ② 인과 분석이란 어떤 결과적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전개방식을 말한다. (나)에서는 디디티의 특성을 말한 뒤 먹이사슬 구조에 따른 피해의 과정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④ ‘전체 생태계 훼손’, ‘재앙’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과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다.

[2019/2018 영역별 기출 양상 비교]

연도 단원		2019. 4.	2018 4.
문법 과 어휘	문법	①음운의 변동과 유형 ②단어의 품사 구별 ③높임 표현의 유형과 적용	①음운의 변동 이해 ②반의관계 이해 ③고전 문법적 지식 이해
	규범 과 어휘	④어휘의 의미 변화 양상과 사례 이해	④조사 어미의 바른 쓰임 ⑤ 띄어쓰기 ⑥ 로마자 표기
	한자	⑤화자 상황에 대한 한자 성어 추리(‘사시사’)	⑦한자 어휘의 독음 ⑧한자 어휘의 표기
작문 과 비문학	작문 과 화법	①조건에 맞는 토론 논제 ②토론자의 말하기 방식 이해 ③담화의 수용방식 이해 ④보기 문장의 자리 찾기	①고쳐쓰기-통일성 저해 문장 ②논리의 오류 이해와 적용 ③설명방식 이해
	비문학 독해	⑤정보 확인과 추리 ⑥서술방식과 개괄적 정보 확인 ⑦정보 이해와 추리 ⑧전개 및 서술방식 이해 ⑨정보 내용의 추론적 이해	④세부 정보 확인 ⑤정보 확인과 추리 ⑥중심 논지 확인 ⑦정보 이해와 추리
현대 문학	문학 이론	①문학의 미의식과 문학 용어(골계, 풍자, 해학)의 이해	
	시	②‘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어조와 표현상 특징 이해	①‘사평역에서’-표현과 정서 이해
	소설	③‘목념이 마을의 개’-특징, 소재의 상징성, 인물의 태도 추리	②‘봄봄’-표현상 특징 이해
	희곡	④‘파수꾼’-배경 이해와 해설자 및 서사 상황 이해	
고전 문학	운문	①‘누항산’-소재의 역할과 서사 상황 이해 (②‘사시사’-한자 성어의 적용)	①정철의 시조+임제 ‘무어별’-소재 역할과 화자의 정서 이해
	산문	③‘춘향전’-서술 방식(서술자 개입 여부) 이해	②~③‘구운몽’-서사 순서 이해, 서사 상황과 심리 이해